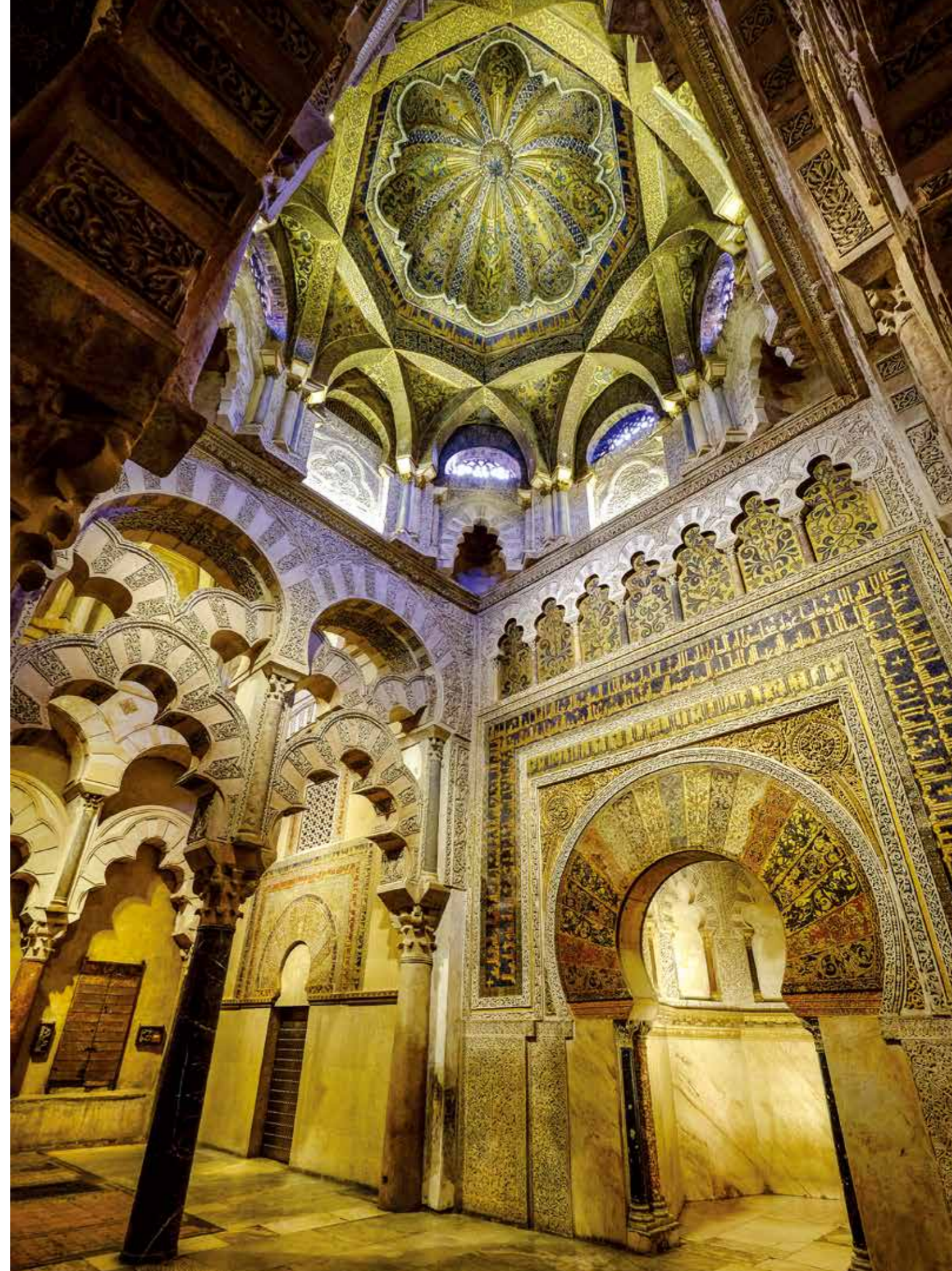


스페인 남부 지방의 아라베스크 문양

8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무어인들은 볼후의 명곡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노래한 역사 속 그날인 1492년 1월 2일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다.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스페인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꽃피웠다. 그들 미술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극히 세련된 아라베스크 문양을 광범위하게 썼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무슬림 건축물을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Andalucían Arabesque

The Moors came from North Africa in the 8th century and ruled the Iberian Peninsula until 1492. Over their 800-year rule, a sophisticated culture flourished in southern Spain.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of Islamic art is its extensive and extremely refined use of arabesque. An exploration of the Muslim architecture of Moorish Spain clearly provides the perfect introduction to this motif.





덩굴과 잎을 도안화하여 리드미컬하면서도 반복적인 패턴을 완성하는 데 쓰인 무늬를 말한다. 참고로 이슬람교는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미술 작품의 소재로 표현하는 일을 금했다.

아라베스크를 포함해 이슬람 미술은 비잔틴 미술, 사산 왕조 미술 등 무슬림이 오랜 시간 지배한 나라의 미술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로마 미술에서 아라베스크 문양을 사용한 사례는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이를 가장 세련되게 구사한 것은 무슬림 미술이지만, 이베리아 반도를 무슬림이 지배한 시기는 8세기 초부터 그라나다 왕국이 함락된 1492년까지 800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 장구한 시간을 떠올리면 그들의 문화가 이베리아 반도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을 거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스페인은 장식 미술에도 아라베스크를 적극 활용했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세비아의 알카사르와 같은 궁전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10세기에 지어진 코르도바의 메스키타와 마디나트 자흐라의 왕궁이다. 이들은 스페인 남부 지방의 무어 건축물과 그 화려한 장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다.

무어 건축을 대표하는 알람브라 궁전의 로스레오네스 중정(왼쪽 페이지). 아라베스크 치장벽토 앞에 놓인 기하학무늬의 공예품. 알람브라 궁전에 자리한 한 공방에서 장인이 타일에 문양을 새기고 있다(아래 왼쪽부터).

The 14th-century Palacio de los Leones at the Alhambra in Granada, Spain, is a stunning example of Moorish architecture (opposite). Geometric patterns can be seen on wooden pieces while arabesque patterns in stucco adorn the walls in the background. A craftsman works at a wood inlay atelier and shop at the Alhambra (below).

An extensive use of arabesque — stylized, interlaced tendrils and foliage such as vines and acanthus leaves, used to create a rhythmic and often repeating pattern — is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Islamic art, along with geometric patterns and an unprecedented use of calligraphy. The religion prohibits the representation of human and animal forms in works of art within religious contexts, though not secular ones.

Arabesque is firmly rooted in the artistic traditions of the lands first conquered by Islam — that is, Byzantine art and the art of Sasanian Iran. In fact, examples of arabesque can be found in Roman art as far back as the 1st century AD. It was in the arts of Islam, however, that it found its greatest refinement, during the period of Moorish rule on the Iberian Peninsula (or at least, parts of it), which lasted for nearly 800 years, from the early 8th century until the fall of Granada in 1492, so it should come as little surprise to find its legacy so influential.

Although the use of arabesque is also widespread in the decorative arts in Spain, it is in the Moorish architecture of Andalucía and its lavish decoration — palaces such as the Alhambra in Granada and the Alcázar of Sevilla, as well as older buildings such as the Mezquita (Great Mosque) of Córdoba, and the ruins of the 10th-century royal palace at Madinat al-Zahra — that it is at its most impressive.

해 질 무렵 그라나다를 둘러싼 언덕에 오르면 울창한 정원 사이로 알람브라 궁전의 첨탑과 들쭉날쭉 총포 구멍을 낸 성벽이 황금빛 석양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내려다보이고, 저 멀리 눈 덮인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웅장한 자태가 시야에 들어온다. 14세기에 건축된, 인류의 걸작이라 할 알람브라 궁전의 외관도 아름답고 황홀하지만, 진정 찬란히 빛나는 것은 내부다. 우아한 중정과 다른 어떤 건축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한 장식으로 둘러싸인 방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정교한 기하학무늬를 수놓은 반짝반짝 빛나는 세라믹 타일이 부드럽고 섬세한 아라베스크 문양과 우아한 캘리그래피 띠를 벌집 같은 디테일로 표현한 치장벽토 무늬와 어우러져 있다.

아라베스크 문양은 기하학무늬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캘리그래피와 함께 무슬림 예술을 이루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여기서 아라베스크 문양이란 포도나무나 아칸서스 같은 식물의

On the rocky hill known as al-Sabika in Granada, in Andalucía, the towers and sprawling crenellated walls of the Alhambra glow golden in the evening light, surrounded by luxuriant, fragrant gardens and etched against a distant smudge of snow on the Sierra Nevada.

As beautiful and enchanting as this view of its exterior might be, it is the interior of this 14th century palace-fortress that really dazzles, its succession of elegant courtyards and chambers sheathed in exquisite decoration. Shimmering panels of brightly colored ceramic tiles with elaborate geometric patterns are juxtaposed with panels of intricately carved stucco, honeycomb-like in their detail, populated by roving, supple arabesques and bands of elegant calligraphy.



선명한 아라베스크 문양을 품은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궁전 하면 떠오르는 뿔뿔이 들어선 아치 모양의 기둥들 가운데 '기도하는 벽'의 모자이크 장식은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곳의 생생한 아라베스크와 식물 문양의 모자이크가 비잔틴 제국의 장인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점이다. 사실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 장인들이 무슬림 통치자의 궁에서 작업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마디나트 자흐라와 알람브라 궁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잎새 모양의 아라베스크 치장벽토는 훨씬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10세기에 만들어진 상아함 유물에도 반영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마디나트 자흐라의 보석상자로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그런데 스페인의 무슬림 시대 세라믹 타일에서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발견되지 않는다. 알람브라와 알카사르 타일의 각진 기하학무늬는 모로코의 타일과 흡사하지만, 오토만제국이 남긴 세라믹 타일의 구불구불한 틀림 장식과 아라베스크와는 거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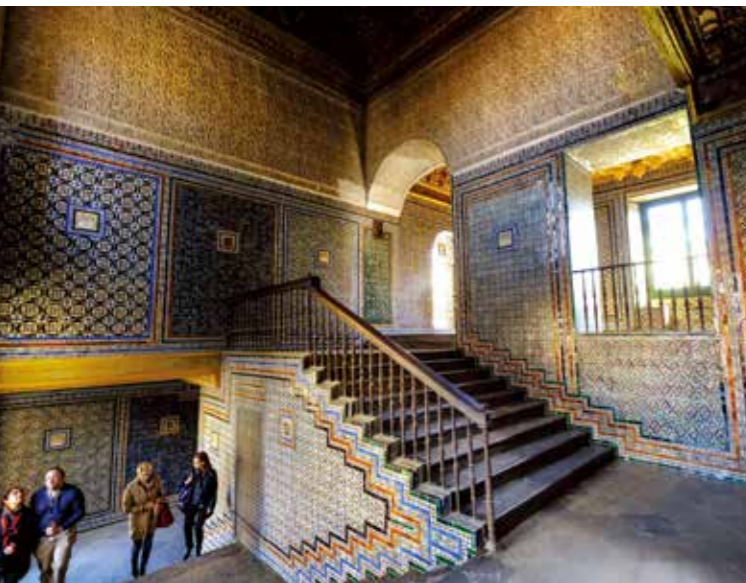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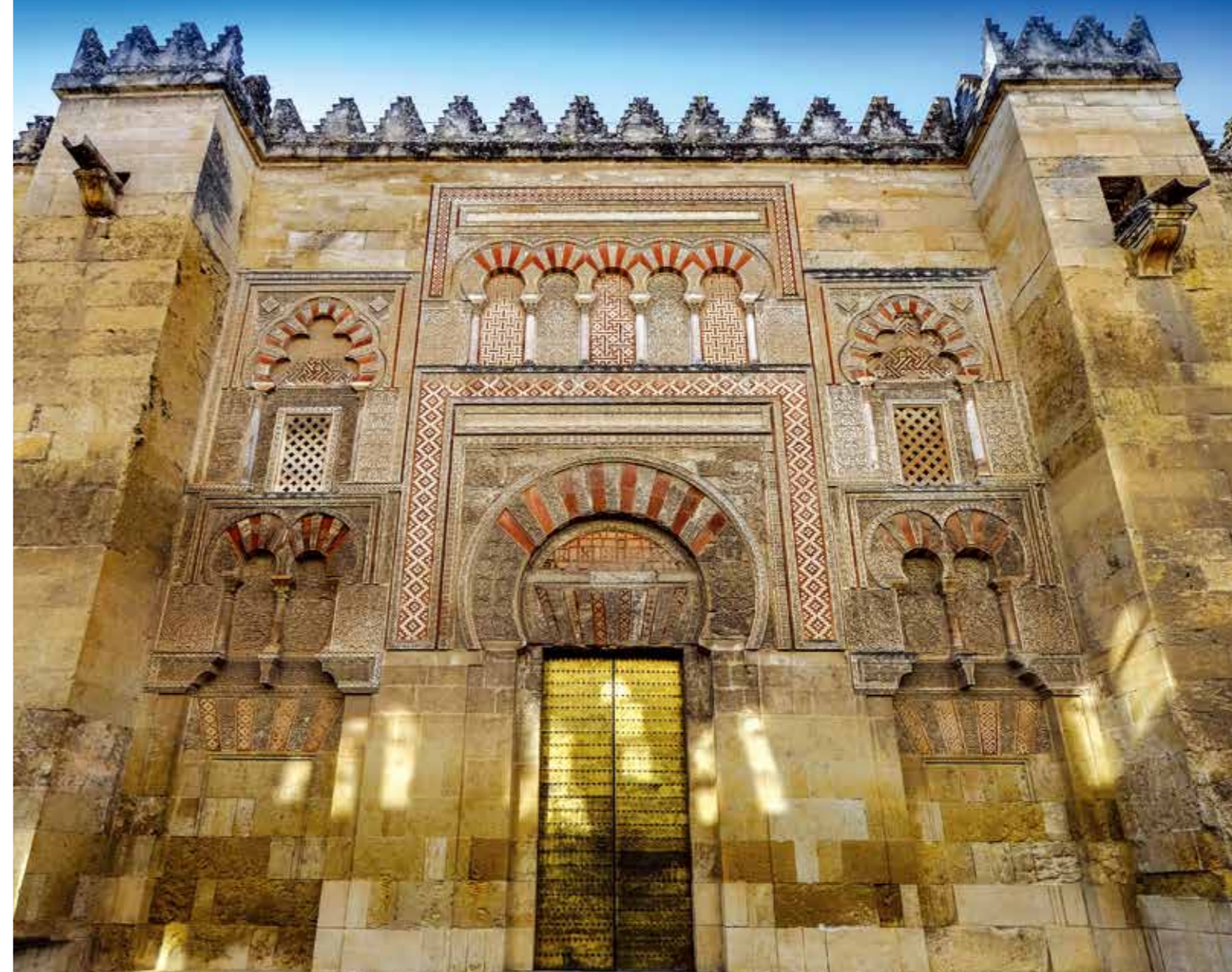
높이 1미터를 훌쩍 넘긴 거대한 화병의 독특한 스타일은 나스리드 왕조 치하 때 안달루시아에서 제작한 것으로, 소용돌이치는 듯한 모양의 아라베스크 문양과 켈리그래피, 동물 문양이 눈부신 금박과 코발트블루로 새겨져 있다. 날개처럼 생긴 손잡이가 달린 이 화병은 일명 '알람브라 꽃병'이라 불린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통 아라베스크 문양과 기하학무늬가 새겨진 도자기를 찾아보려면 그라나다에 위치한 과할라우사에서 탐사를 시작하는 게 좋다. 이곳은 가족이 운영하는 도예 공방으로 370년 넘게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바사르'

LAVISH DECORATION Among the forest of columns (with their distinctive, two-tiered arches) that is the interior of the Mezquita in Córdoba, the 10th century *mihrab* (prayer niche) glitters with mosaic decoration. These mosaics, with their vivid arabesque and plant motifs, are actually the work of Byzantine craftsmen — it was not unusual for Christian (and Jewish) artisans to work at the courts of Moorish rulers.

The leafy stucco arabesques of Madinat al-Zahra, the Alhambra and elsewhere are mirrored, on a much smaller scale, in some minutely carved ivory caskets from the 10th century — most famously the so-called Pyx al-Mughira from Madinat al-Zahra, now housed in the Louvre. On the other hand, arabesques are notably absent from most ceramic tiles from Moorish Spain — the angular geometry of the tiles at the Alhambra and the Alcázar of Sevilla closely resembles tiles in Morocco, but is a far cry from the

아라베스크와 기하학무늬로 치장한 세비아의 카사데필라토스 내부. 세비아 인근에 자리한 산타크루스의 한 도자기 공방(아래 왼쪽부터), 코르도바의 메스키타는 아라베스크와 기하학무늬의 정수를 보여준다(오른쪽 페이지).

The Casa de Pilatos, in Sevilla (below left). A pottery shop in the Santa Cruz neighborhood of Sevilla. Many traditional craftsmen make products in the old Andalusian style (below right). The 10th-century Mezquita of Córdoba mixes geometric and arabesque motifs as many Moorish structures of the time did (opposite).



라고 부르던 중세 상점가의 중심을 이룬 좁은 거리들이 남은 비브람블라 광장 근처에도 도자기나 타일을 판매하는 공방이 여럿 있다. 멀게는 포르투갈의 아줄레주 타일에서도 아라베스크 문양이 발견된다.

아라베스크와 당초무늬는 19세기 바스크 지역의 솔로아가 가문에서 제작한 금속 공예품의 금은 상감기법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스페인 남부의 무어 건축물 탐사가 주목적이라면 아라베스크 문양과 카르투스 장식의 금속 문을 찾아보면 된다. 코르도바 메스키타나 세비아 대성당 한쪽 벽면에 있는 장식들도 아라베스크의 좋은 예들이다. 코르도바의 회반죽으로 두른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 또는 알람브라 궁전의 으리으리한 중정 사이를 거닐다 보면 아라베스크의 독특하면서도 기이한 레퍼토리가 물리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글 루돌프 에이브러햄 사진 카를로 모루키오

sinuous tulips and arabesques of Ottoman ceramics.

Arabesques and intricate scrollwork are also characteristics of the damascened (gold- and silver-inlaid) metalwork made in the Basque country during the 19th century, by the Zuloaga family. But if you are exploring the exquisite Moorish architecture of Andalucía, you can simply look out for metal doors decorated with arabesques and cartouches containing calligraphy, such as the ones at the Mezquita of Córdoba or on one side of the Cathedral of Sevilla.

Amid the meandering, whitewashed alleys of Córdoba, or among the palatial courtyards of the Alhambra, the distinctive repertoire of arabesque is never far away.

By Rudolf Abraham Photographs by Carlo Morucchio

찾아가는 길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서 안달루시아 지방의 거점 도시인 그라나다, 세비아, 말라가의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매일 운항된다. 그라나다, 세비아, 코르도바를 연결하는 정기 버스 노선도 있다(www.alsa.es). 세비아는 마드리드에서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이면 달을 수 있다. 알람브라 궁전(www.alhambra-patronato.es)은 매일 오전 8시 30분에 문을 열어 입장권은 '오전(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과 '오후(2시부터 8시까지, 동절기에는 6시까지)' 두 가지로 나뉜다. 입장권은 이 시간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정해진 개장

스케줄 내에 방문을 마쳐야 한다. 야간 입장권도 구입이 가능하다. 어느 시간대에 가든 엄청나게 길게 늘어진 대기 줄을 각오해야 하므로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

추천 숙박지

그라나다의 산타이사벨라레알(www.hotelsantaisabellareal.com)은 알바이신에 위치한, 16세기 주택을 개조한 아담한 부티크 호텔로 알람브라 궁전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팔라시오산타이네스(www.palaciosantaines.es)도 알바이신에 자리한 수없이 많은 숙소 중 추천할 만하다. 카사델포에타(www.casadelpoeta.es)는 세비아의 역사

중심지에 위치한 17세기 주택을 복원한 부티크 호텔로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중정을 중심으로 객실이 배치돼 있다. 알카사르 궁전에서 모퉁이를 돌면 바로 등장하는 엘레모로(www.elreymoro.com)도 훌륭한 편이다. 코르도바에서는 발콘데코르도바(www.balcondecordoba.com) 호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훌륭하다.

추천 레스토랑

그라나다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제대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제철 식재료를 고집하는 다마스케로스만 한 곳이 없다. 위치도 알람브라 궁전에서 가까워 찾아가기 편리하다.

라올리바(www.laoliva.eu)는 그라나다의 서남 지역에서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질 좋은 올리브유를 쓰는 게 특징이다. 이곳은 다섯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는데, 한 잔씩 내올 때마다 세 종류의 타파스 요리가 곁들여지며, 주인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레스토랑이나 타파스 바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와인 요리 맛볼 수 있다. 세비아에 위치한 타파스 바 중에서는 라브루닐다와 라페포나를 추천한다. 두 곳 다 매우 인기 있는 곳이다. 코르도바에 위치한,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 타베르나루케는 아담한 규모에 정겨운 분위기로 손님을 맞는 곳이다.



대한항공은 마드리드주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Madrid three times a week.

GETTING THERE

There are daily flights between Madrid-Barajas Airport and the international airports of Granada, Sevilla and Málaga. Regular coach services run between Granada, Sevilla and Córdoba(www.alsa.es), and Sevilla is only about 2 hours and 30 minutes from Madrid by high-speed train. The Alhambra(www.alhambra-patronato.es) is open daily starting at 8:30am, with tickets available for either a morning (8:30am-2pm) or an afternoon visit (2-8pm, or until 6pm in winter). Tickets only cover one admission period, not both, and you need to complete your

visit within the scheduled period. You can also buy a ticket for an evening or night visit.

WHERE TO STAY

In Granada, Hotel Santa Isabel la Real(www.hotelsantaisabellareal.com) is a lovely little boutique hotel in a beautifully restored 16th-century house in the Albaicín, a short walk from the Alhambra. Another good place in the Albaicín is the Palacio Santa Inés(www.palaciosantaines.es). In Sevilla, Casa del Poeta(www.casadelpoeta.es) is a boutique hotel in a restored 17th-century house in the city's historic center,

with rooms arranged around an elegant courtyard. El Rey Moro(www.elreymoro.com) is another good choice, just around the corner from the Alcázar. In Córdoba, the Balcón de Córdoba(www.balcondecordoba.com) has outstanding views from its terrace.

WHERE TO EAT

Fine dining at an affordable price in Granada does not get much better than Damasqueros(http://damasqueros.com), which places a strong emphasis on seasonal produce. It is also conveniently close to the Alhambra. La Oliva(www.laoliva.eu) is a tiny place in

southwestern Granada, offering a tasting menu of three olive oils followed by five wines, each paired with three tapas dishes, each of which are explained by the owner. It is not a restaurant or tapas bar in the traditional sense. Two good tapas bars in Sevilla are La Brunilda and La Pepona. In Córdoba, Café-Taberna Luque is a friendly place run by a husband-and-wife team.

자세한 문의는 ☎ **한진관광**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 **HANJIN TRAVEL** www.kaltour.com